

지역 소식통

김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25억원으로, 신청 대상은 4·5등급 경유차 및 지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년도로 3중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출고 당시 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20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산동 지역발전협 2024년 정기총회

김제시 김산동 행정복지센터는 20일 지역발전협의회(회장 박정은)가 2층 회의실에서 회원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는 2023년 결산 보고와 더불어 2024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를 하며 청통의 해인 갑진년에 대한 도약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2024년에 계획된 사업으로는 △가정의 달 짜장 나눔행사, △산타 방문행사, △사람의 김장 나눔 행사, △김산동 송년의 밤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 시작한 '11월에 온 산타' 방문 행사는 김산동 관내 27개 경로당을 비롯해 1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는 행사로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 올해는 부족한 점을 보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2~3월, 숙박할인 받고 완주가자'

완주군, 한국관광공사 주관 '여행가는 달 협업사업' 참여 대승한지마을·소양고택 등 저렴한 가격에 이용 가능

이달부터 내달까지 대승한지마을, 소양고택, 경천애인마을, 놀토피아 등 완주군의 대표 관광지들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완주군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여행가는 달 캠페인 협업사업'에 적극 참여, 3,000만 방문객을 이끈다고 20일 밝혔다.

완주군은 캠페인 동안 전북에서 가장 많은 가장 많은 이벤트를 연다.

지역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숙박 체험, 놀이시설 등을 10~40% 할인가로 제공한다.

세부적으로 대승한지마을과 경천애인마을 숙박 이용시 주중 20%, 주말 10% 할인가로 이용 가능하고, 소양고택은 주중(일~목) 10% 할인, 공평팔썬 한옥리조트는 주중·주말 10% 할

인 이용 가능하다. 구이면의 카라반 아미존은 주중 20% 할인으로 숙박이 가능하며, 고산면 놀토피아의 체험놀이는 입장료 20%를 타임별(하루 6타임) 6명 한정 할인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공평팔썬 한옥리조트, 소양오성한옥문화센터도 할인을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여행가는 달 홈페이지 여행지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캠페인 기간 동안 범국민적 여행 분위기를 조성해 지역활력 제고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관광 인프라를 적극 확대해 '가고 싶은 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여행가는 달 캠페인 협업사업'에 적극 참여, 3,000만 방문객을 이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소양고택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한 관광객의 모습이다.

(사진=완주군청 제공)



김제시는 지난 19일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위한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농업·농촌 중장기 비전 확립

김제시,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김제시는 지난 19일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위한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정책전문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오는 2028년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법정 의무 계획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과 농촌의 중장기 비전을 담아 수립하는 지역 단위 기본계획이다.

중간보고회는 연구 용역 수행기관인 (주)삼농연구소 이승형 박사의 용역 중간보고와 참석위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김제시 농업·농촌의 현황 및 특성 분석 및, 농업·농촌 발전 공간에 대한 구상을 갖는 시간도 포함했으며 미래로 도약

하기 위한 김제시 농업·농촌의 중장기 비전확립 및 실현 가능한 농업, 농촌, 농생명산업 방향 등이 제시됐다.

농생명산업의 고도화와 농촌 가치창출의 선도지역, 김제라는 비전과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농생명산업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실현을 위한 농업구조 전환, 농촌다움 공간재생과 생활서비스 확충으로 활력 넘치는 농촌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참여와 협치를 통한 역량강화와 농정거버넌스 혁신체계 구축이라는 5대 전략을 가지고 수립 진행 중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변화된 여건과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중장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해 미래농업발전이 무게를 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실현 가능한 전략이 담긴 충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종보고회까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의회, 오늘 임시회 개회... 9일간 의정활동 돌입

올해 의사일정 시작... 18건 조례안 처리·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21일 제28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완주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8건의 조례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각 실과별로 실시되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해당 상임위원회 별도 △23일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행사

과 △26일 관광체육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미래전략담당관, 경제산업국 △27일 지역활력과, 경제식품과,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건설안전국(건설도시과) △28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혁신개발과, 건축허가과, 농업기술센터, 완주산단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경애 의원(건강한 고향 화시대 새로운 경로당 문화 스마트경로당 구축 필요), 유의식 의원(완주 딸기 명품화를 위한 딸기묘 인증제도 도입 및 고설재배 확대해야), 심부진

의원(환경오염사고 대비 완주 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박차 가해야), 이주갑 의원(참전유공자 장례지원 확대 필요) 등의 5분 자유발언이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남용 의장은 "2024년 첫 번째 임시회인 만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완주군의 전반적인 사업을 검토하고, 상정된 안건들을 꼼꼼하게 살펴 주민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제28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는 오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완주군의회 공식 유튜브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서울 관악구서 고향사랑기부 현장 홍보

'지평선쌀' 우수성도 알려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갑진년 새해 우호 도시를 찾아 지평선쌀의 우수성과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20일 우호 도시인 서울시 관악구를 방문해 관악구청 직원과 관악구민을 대상으로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 및 '지평선쌀' 홍보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시행 2년 차인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홍보를 위해 관악구청 구내식당과 청사 입구에서 김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오늘은 자매도시 쌀밥 먹는 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자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해

택이 있으며, 기부금의 30%는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김제만의 특색이 담긴 40개 품목의 답례품을 구성해 기부자들의 만족감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김제 공동브랜드 중 하나인 '지평선쌀'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김제평야에서 재배된 신동진 품종의 쌀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인증 등을 통한 꼼꼼한 품질관리로 뛰어난 맛을 인정받은 김제시의 브랜드상품 중 하나이며 미국 수출에 이어 캐나다 수출길에도 오르는 등 세계시장에서 그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

7년 연속... 전북 유일

완주군이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7년 연속 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7년 연속은 전북에서 완주군이 유일하다.

20일 완주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업무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총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전력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민원민족도 등 5개 분야 19개 지표를 기준으

로 진행한다.

완주군은 유희태 군수가 직접 간담회를 주재해 민원 업무 담당자와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등 민원인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시책으로 도움벨방 운영, 민원실 폭언·폭행 방지를 위한 안전장비(강화유리, 웨어러블 캠) 비치, 장애인에 위한 화장실전화 및 점자책자 비치, 매주 친절교육 실시로 친절역량 강화 및 기본소양 능력 향상 노력 등이 호평받았다. /완주=염재복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